

(2015년 4월 브라질 선교 편지)

사랑하는 브라질 선교 기도 후원자님들께: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와 서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분 한분과 함께 하셨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는 날이 갈수록 위험하고 어려운 이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함영미 선교사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를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혈당의 수치가 16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많이 피곤해 하지만, 더 이상 수치가 악화되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브라질은 국영 기업체인 브라질 석유공사 (Petrobras) 의 부정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부정 부패에 대한 문제로 경제까지 영향을 받아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2015년의 이곳 가을 학기를 잘 마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사야서를 강해하였습니다. 브라질 신학생들과 아프리카의 앙골라 신학생들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고 학기를 잘 마치었습니다.

이 선교 편지를 드리며 한가지 저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학기를 마치고 우선 안식년의 기간을 당분간 갖고자 합니다.

안식년을 갖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8 학기를 가르쳐오면서 8 과목을 강의하여 왔는데 그동안 제가 준비하였던 모든 강의 과목들이 고갈이 되어 안식년을 갖으며 새로운 강의 과목들을 준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년동안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의 이동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연유로 제가 매 학기 새로운 과목을 강의 하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Figure 1 (Suzanna, Madalena, Macueno, Moises, Nunes Pataqui)

또한 저희 가정에 감사드릴 일은 미국에 두고 왔던 세 딸들 중에 가운데 딸 연정이 (Barbara) 가 7 월에 San Francisco 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랑은 서기 2 세기 경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또 지난 1915 년 오토만 터키에 의하여 150 만명 이상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100 주년 기념식을 갖은 Armenian 계 미국인 크리스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안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John Manoogian III 세 입니다.

결혼 예배는 자그마한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아르메니안 목사님의 주례로 드리지게 되고 저는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결혼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가족과 친지들 40 명만 참석한 가운데 드리지는 조촐한 결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신부

아버지인 제가 축도를 하게 되었음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르메니안 목사님이 저를 그토록 만나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마음이 설렙니다.



Figure 2 (졸업하는 Renan Anchieta 브라질 신학생과 함께)

안식년을 갖기 위한 마지막 강의를 마치며 학생들이 더없이 아쉬워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 그토록 많은 카메라 Flash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들을 보며 지난 4년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초청할터이니 앙골라에 와서 가르쳐 달라며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Figure 3 (졸업하는 Macueno 의 브라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과 멋을 낸 Madalena Vici)

졸업하고 앙골라로 돌아가면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 받을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브라질의 미래의 종들을 만나고, 지난 4 년 동안 함께 지내며, 가르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화와, 앙골라 학생들과, 브라질의 학생들과, 함영미 사모의 건강 회복과, 저의 안식년과, 앞으로의 가야할 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축원 드립니다.

2015 년 5 월 11 일

브라질에서 주영호, 함영미 선교사 드림